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3호 [루계 제25622호] 주제 106 (2017)년 4월 23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4월 22일 래천 돼지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4월 22일래천 돼지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인민무력성 제1부상 육군 대장 서흥찬동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항공군상장 김광혁동지, 정치위원 항공군상장 손철주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연건축면적 1만 690여㎡이고 관리구역, 생산구역, 사료장고구역, 유기질비료생산구역으로 이루어진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4월 22일래천 돼지공장은 연간 수백여톤의 돼지고기를 생산할수 있는 규모가 큰 축산물생산기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014년 3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에서 서부지구와 동부지구에 현대적인 돼지공장들을 건설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명당자리에 부지도 잡아주시였으며 설계형상안도 지도해주시였을뿐만 아니라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2014년 8월 착공



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건설관철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발휘함으로써 현대적인 돼지공장들을 훌륭히 일떠세우고 2016년 8월에 준공식을 진행하였으며 지금은 생산정성화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전경이 참 멋있다고, 한쪽의 그림자도, 아담하고 정갈하면서도 깨끗하고 시원하게 건설을 잘했다고, 위치도 좋고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가 완벽하게 실현되었다고 하시면서 주변환경이 마음에 든다고 북돋아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연혁 소개실, 종합조종실, 과학기술보급실,

도살장, 령통고, 고기가공실, 종합사육우리, 사료가공장, 유기질비료생산장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건설정형과 관리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모든 생산공정들을 실시간 감시 및 자동조종하며 경영정보를 종합분석평가하여 경영활동을 진행할수 있도록 생산정보체계, 사료공정체계, 경영정보체계로 구성된 통합생산체제를 잘 구축해놓았다고 하시면서 생산공정의 과학화, 정보화, 자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돼지털뽑기와 가죽벋기기, 내장들어내기 등 도살장의 생산공정과 절단기,

세단기, 분쇄기, 주입기, 봉합기 등을 거쳐 여러가지 훈제품과 순대, 물파싸를 생산하는 가공실의 생산공정들이 모두 자동화되었다고, 손로동이 하나도 없이 기계가 적적 해내고있다고 기뻐하시였다.

령통고에 통돼지들이 가득차있는데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고 하시면서 비형사들에게 선도가 좋은 돼지고기를 풍족하게 공급해줄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새끼낳이효동에 전기온돌과 보온삿갓 등이 설치되어있어 돼지새끼들의 체온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고, 갓난새끼들이 어미돼지의 젖을 빨기도 하고 오구구

모여 잠자고있는 모양이 참 귀엽다고 하시였으며 육성사와 비육사에서 자동먹이통과 물꼭지를 통하여 먹이와 물을 배분리 먹은 송아지만 한 돼지들이 축 늘어져 자고있는데 돼지바다가 펼쳐졌다고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돼지들의 생육조건과 사양관리에 적합한 환경을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도록 종합사육우리를 과학기술적으로 꾸린 결과 25명의 종업원이 4,000여마리의 돼지를 기를수 있을뿐만 아니라 폐사률도 극력 낮출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사료가공장에서 여러가지 먹이들을 팜팡 생산하고있으며 창고마다에 사료들이 그득히 쌓여있는데 울려대고고기생산목표표를 무조건 수행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돼지배설물을 리용하여 유기질부항비료를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설비들도 그흔히 갖추어놓고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사료보장농장들에 필요한 유기질복합비료를 보내주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늘 교시하시던대로 축산과 농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제를 확립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을 일떠세우면서 애국심을 발휘하여 설비들의 국산화비율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는데 우리것에 대한 자부심과 우리 식대로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는 신심이 생긴다고, 인민군대가 당의 국산화방침관철에서도 앞장에 섰다고 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4월22일 래천 돼지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우량품종의 돼지들을 더 많이 육종해내며 종자확보와 보존대책을 철저히 세움에 대한 문제, 올바른 먹이 처방을 찾아내고 첨가제문제를 해결하며 사료단위기준을 낮추면서도 돼지의 종체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 돼지사양관리방법의 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이며 위생방역대책을 빈틈없이 세움에 대한

문제,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짜고들어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일데 대한 문제, 설비들을 애호관리할데 대한 문제, 돼지공장들사이에 경험교환을 활발히 진행하며 따라배우기, 따라왔서기운동을 힘있게 벌일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4월22일래천돼지공장은 불수록

회한한 멋있이공장, 보기만 해도 마음 이 흡족한 공장, 우리 나라 축산기지의 본보기라고 하시면서 우리 비행사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 후방기지가 또 하나 일떠섰다고 대안축을 표시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서부지구와 동부지구에 일떠선 돼지공장들에서 생산한 고기를 정상적으로 공급받고있는 비행사들속에서 돼지고기가 정말 달다는 반응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르다고 하시면서 당의 의도대로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세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축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이약하게 투쟁함으로써 우리 비행사들에게 더 많은 돼지고기와 가공품을 생산하여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4월22일래천돼지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자기들의 일리에 찾아오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담씀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항공군의 싸움준비 완성에 적극 이바지할 불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에서 병예훈장을 수여해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영웅조선인민군장군 85회를 즈음하여 평스까인민군전통회의에서 평스까인민군 명예입사훈장을 수여해드리였다.

중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대원수께서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 85회를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동지께서 평스까인민군 명예입사훈장을 수여해드리겠다고 의뢰하시였다.

당당히 맞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김정은원수동지의 태평과 지략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 조선인민군장군 85회를 맞으며 로병들의 마음을 담아 그이께 회의의 병예훈장을 수여해드리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시였다.

본사기자

영원한 민족의 래양, 절세의 애국자

해마다 뜻깊은 4월이 오면 남조선 각계에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추모하는 남녘겨레의 목소리가 뜨겁게 울려나오고있다.

한양대학교의 한 교수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생은 어떤면 천하를 밝혀주는 태양의 출현이었고 우리 민족이 맞이한 최대의 경사였다고 하면서 주석님의 생애는 그분께서 지니신 위대한 천품과 시대와 민족앞에 남기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꺼질줄 모르는 태양처럼 오늘날 세계만방에 빛나고있다고 격찬하시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산천수운을 다 겪으시면서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당대에 한 나라, 한 민족을 진보와 번영의 높은 병마루에 올려세우신 위인은 없었다.

총정복도 청주의 한 교수는 세 자들에게 김일성주석님의 한생을 돌이켜볼수록 그분께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사무친다고 하면서 이렇게 진정을 터놓았다. 단군민족사가 반만년을 헤아리지만 역사의 어느 길에도 김일성주석님과 같이 민족과 겨레를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분은 없었다. 민족에게 세생의 기쁨을 주시려고 백두산에서 군사불 일으켜 조국을 찾아주신분도, 이북에 민중이 복락하는 세상을 세우시고 위대한 심장이 고통을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렬명거리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13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에 세계인문들이 보도하였다.

미국의 AP통신, VOA방송, 프랑스의 AFP통신, 일본의 NHK방송은 북조선의 김정은원수동지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렬명거리 준공식이 진행되었다. 분석가들은 렬명거리건설이 그이의 인민사랑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제적인 제재에도 끄떡없이 전진하려는 북조선의 의지의 발현이라고 평가하고있다.

러블 입피세워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시책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것이다.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훌륭한 가구들까지 갖추어진 최고급살림집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들이 김정은원수동지께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김정은원수동지께서 건설 전 파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였다. 중국의 홍콩 방송위성TV방송은 김정은원수동지께서 렬명거리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하므로 이렇듯 보도하였다. 김정은시대를 대표하는 렬명거리는 조선의 만리마라도를 국제사회에 파시하는 건축물이다. 김일성시대를 창조된 천리마도로는 오늘날 김정은시대에 와서

이 그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그로 인해 어떤 후파가 탄생하였는지 우려속에 주시하였다. 그러나 북조선원수동지께서는 열병식에 앞서 평양에 새로 입피세워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북조선에 있어서 새 거리준공식은 실로 중대한 사변이다. 렬명거리는 북조선에 가져오는 유연의 체제가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이 나라는 그 어느때보다도 더 강해졌다는것을 증명하듯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되었다.

세계 언론들 광범히 보도 이 그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그로 인해 어떤 후파가 탄생하였는지 우려속에 주시하였다. 그러나 북조선원수동지께서는 열병식에 앞서 평양에 새로 입피세워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북조선에 있어서 새 거리준공식은 실로 중대한 사변이다. 렬명거리는 북조선에 가져오는 유연의 체제가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이 나라는 그 어느때보다도 더 강해졌다는것을 증명하듯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되었다.

【조선중앙통신】

혁명학원원아들을 위해 바쳐가는 값높은 삶의 자욱

의 주군사회급양관리소 의주특산물식당 노동자 리영애동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 미덕으로, 사회적응으로 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는 어디 가나 《우리》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불리우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만발하는 사회의 무수한 꽃들 중에는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

이 스스립업이 《우리 신의주엄마》라고 부르는 평범한 녀인도 있다. 그가 바로 신의주시에 자리잡고있는 의주특산물식당 노동자 리영애동무이다.

우리는 그에 대한 귀재과정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자신의 행복과 참된 삶의 보람을 찾을 줄 아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값있는 인생관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었다.

추억의 갈래를 더듬던 리영애동무는 아무리 힘들어도 세손으로 돼지를 길러 지천물자를 마련할 결심을 더욱 가다듬었다.

그는 돼지치기에 모든 열정을 아낌없이 바쳤다. 몇달이 지나 새끼돼지들이 피땀겨울 살이 진 엄지돼지로 자라나는것을 보는 기쁨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낱새를 자기 손으로 키운 돼지를 보면서 한바탕 그것을 아들이 부추는 부대에 보내주 고싶은 충동을 느끼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뽕매미충을 보면 그의 눈앞에 보무당담히 형 권해나가는 만경대혁명학원종 대가 비껴들었다.

문득 그의 귀전에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오듯 들리었다.

《일본반동분들은 만경대혁명 학원이 때때로 소련사람들을 키우 는 곳이라고 아주심했단다. >>

그의 아버지 피땀겨울 지주로 온 일본땅에서 태어나 소우리로 20살이 넘도록 천대와 멸시만 을 받으며 살다가 사랑의 배급 을 따라 제일먼저 조국의 품에 안기었다. 유년시절 그는 어떻게 되어 아버지업에 오기 좋 다 싶어가 생각이 있었었고 문곤 하였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그 품을유를 귀하곤 하였다.

아버지가 원한서던 그 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것은 조선에 들어와 《광주는 부른다》가 방영 되던 날이었다. 부다른 흥분속 에 시흥 눈물을 흘리며 영화를

보던 아버지는 영화에서 나오는 일본놈들의 만행은 단순한 영화 의 장면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려게 말하였다.

《네 업에 생긴 이 허물자라 와 부러진 이발도 조선사람이라 고 무작정 차고 때리면 일본놈 들이 먼진 야구공에 맞아 생 겹것지란다. 때맞아 찢겨진 상 치의 아픔보다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는 땅구노의 설움이 더 커서 밤새도록 울던 그 밤에 난 조국이란 무엇인지 알았다. >>

그때부터 아버지는 다시는 쓰

라던 력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조국을 찾아주고 오날의 행복을 안겨준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말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그날의 아버지가 오늘날 조국 을 굳건히 지키려면 때두의 열혈 을 이어나갈 혁명의 계승자들이 지라는 만경대혁명학원으로 이사 가라고 통을 떠미는것만 같았다.

이렇게 되어 그는 주제97 (2008)년 만경대혁명학원생 활기념일에 힘써서 키운 어머니 리의 돼지를 팔아 돈이들을 위 한 첫걸음을 내질었다.

리영애동무는 당의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제4차 전국어머니대 회에 대표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 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 일에 그칠필 마스신 속에서 소 가 울린 소박한 편지를 보아주시 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고, 앞으로 원아들이 정답게 부르는 《우리 신의주엄마》의 청소를 계속 시키게 하라니라는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었다.

뿐만 같은 사랑과 믿음을 달 아안은 그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리영애동무는 위대한 우리 당 과 귀중한 조국을 온몸으로 받 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심장으로 다지며 애국선민의 길을 더욱 역세게 걸어갔다.

그 나날에 그는 조선로동당원 의 고귀한 영예를 지니는 크나 큰 행복을 만안하게 되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 정과 무한한 헌신성을 지니고 리영애동무는 지금까지 260 마리의 돼지를 길러 만경대혁명 학원에 보내주었다.

《우리 신의주엄마》, 원아들의 이 친근한 부름을 소중히 새겨 두고 리영애동무는 오늘날 애국 의 한길로 힘없이 걸고있다.

※ ※

돈돈한 뿌리가 없는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수 없듯이 조국도 뿌리와 같은 애국자들이 없으면 장성번영할수 없다.

언제나 당중앙위원회 프락에 마음을 이어주고 당과 심정의 말을 나누며 조국을 받드는 뿌 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는 그 길 에서 값있는 삶의 보람을 찾는 리영애동무와 같은 애국자들이 많 아 내 조국이 굳건하고 더욱 승승장구하고있을 것이다.

글 및 사진 특약기자 송승훈

애국의 뿌리는 어떻게 내렸는가

10여년전 어느날 《로동신문》을 보면 리영애동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해 보내주시는 소식이 실린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워 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우리 사회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에 비하면 나는 지금껏 아무도 한 일이 없지 않은가.)

그날의 행군시기부 특별영예에 공인된 친혈연형 도라주조 집체교수들을 축하하기위한 년 로한 미용화합아니를 원정어미 나처럼 돌아와주시는 자기도 고마 운 우리 제도를 위해 무엇인가 이바지한다고 자부해온 그였지 만 그는 만족할수 없었다. 그의 하여 그는 돼지를 길러 인민군 군인들과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보내주는 좋은 일을 찾아할 결 심을 가다듬었다.

처음에 그는 점주번에 돼지우

리를 지었다. 신의주시 도시시 설사업소에서 로동자로 일하던 남편 방봉애동무도 돼지우미는 일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어리건의 돼지우리리 리는 리영애동무는 백성이 좋고 중재물이 높은 종사자를 확보 하기 위해 밥이 굶도록 뛰었다 했다. 우왕왕풍의 세기돼지를 구하기 위해 하루 100여리의 길을 오가기도 하였다.

돼지를 기르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힘들 때마다 그는 당의 품에서 성장하던 나날들 을 되새겨보았다.

리영애동무는 신의주말필정 기공장 조성직장 석회공으로 사 회생활의 첫걸음을 내질었다. 얼마후 작업반원들이 된 그는 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려 대공을 위함으로 불려일었다. 아부의 일에도 힘들을 쏟았다. 그에게 있어서 산뜻하고 번성하는 법랑 철기를 생산하는 로동생활은 더 없는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다.

이렇게 집도 새로 꾸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생활에서 자 그마한 애로라도 느낄세라 세심 히 보살펴주고있었다는것이였다. 당의 품속에서 영웅의 어머니로 복받은 삶을 누리려는 이요야말 을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가 돌아 올 때 어보는 한창의 편지를 들 려주며 무라했다.

《물어보면 봉로리에 좀 들러 이라고 집도 새로 꾸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생활에서 자 그마한 애로라도 느낄세라 세심 히 보살펴주고있었다는것이였다. 당의 품속에서 영웅의 어머니로 복받은 삶을 누리려는 이요야말 을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가 돌아 올 때 어보는 한창의 편지를 들 려주며 무라했다. >>

물어보면 봉로리에 좀 들러

보던 아버지는 영화에서 나오는 일본놈들의 만행은 단순한 영화 의 장면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려게 말하였다.

《네 업에 생긴 이 허물자라 와 부러진 이발도 조선사람이라 고 무작정 차고 때리면 일본놈 들이 먼진 야구공에 맞아 생 겹것지란다. 때맞아 찢겨진 상 치의 아픔보다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는 땅구노의 설움이 더 커서 밤새도록 울던 그 밤에 난 조국이란 무엇인지 알았다. >>

그때부터 아버지는 다시는 쓰

라던 력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조국을 찾아주고 오날의 행복을 안겨준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말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그날의 아버지가 오늘날 조국 을 굳건히 지키려면 때두의 열혈 을 이어나갈 혁명의 계승자들이 지라는 만경대혁명학원으로 이사 가라고 통을 떠미는것만 같았다.

이렇게 되어 그는 주제97 (2008)년 만경대혁명학원생 활기념일에 힘써서 키운 어머니 리의 돼지를 팔아 돈이들을 위 한 첫걸음을 내질었다.

리영애동무는 당의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제4차 전국어머니대 회에 대표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 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 일에 그칠필 마스신 속에서 소 가 울린 소박한 편지를 보아주시 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고, 앞으로 원아들이 정답게 부르는 《우리 신의주엄마》의 청소를 계속 시키게 하라니라는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었다.

뿐만 같은 사랑과 믿음을 달 아안은 그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리영애동무는 위대한 우리 당 과 귀중한 조국을 온몸으로 받 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심장으로 다지며 애국선민의 길을 더욱 역세게 걸어갔다.

리영애동무는 당의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제4차 전국어머니대 회에 대표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 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 일에 그칠필 마스신 속에서 소 가 울린 소박한 편지를 보아주시 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고, 앞으로 원아들이 정답게 부르는 《우리 신의주엄마》의 청소를 계속 시키게 하라니라는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었다.

뿐만 같은 사랑과 믿음을 달 아안은 그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리영애동무는 위대한 우리 당 과 귀중한 조국을 온몸으로 받 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심장으로 다지며 애국선민의 길을 더욱 역세게 걸어갔다.

리영애동무는 당의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제4차 전국어머니대 회에 대표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 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 일에 그칠필 마스신 속에서 소 가 울린 소박한 편지를 보아주시 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고, 앞으로 원아들이 정답게 부르는 《우리 신의주엄마》의 청소를 계속 시키게 하라니라는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었다.

뿐만 같은 사랑과 믿음을 달 아안은 그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리영애동무는 위대한 우리 당 과 귀중한 조국을 온몸으로 받 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심장으로 다지며 애국선민의 길을 더욱 역세게 걸어갔다.

리영애동무는 당의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제4차 전국어머니대 회에 대표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 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 일에 그칠필 마스신 속에서 소 가 울린 소박한 편지를 보아주시 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고, 앞으로 원아들이 정답게 부르는 《우리 신의주엄마》의 청소를 계속 시키게 하라니라는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었다.

뿐만 같은 사랑과 믿음을 달 아안은 그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리영애동무는 위대한 우리 당 과 귀중한 조국을 온몸으로 받 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심장으로 다지며 애국선민의 길을 더욱 역세게 걸어갔다.

엄마엔 분사원직급으로 복장군 봉로리에 살고있는 공화국 영웅 리충성동무의 부모들이 편 지를 보내왔다.

전지에는 군사임무수행중 장 록에게 희생된 아들에게 공민의 최고영예인 공화국영웅호를 수여 해주시고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시기 위한 장군묘역 건설을 위한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 과 온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는 일을 못하게 할 인라카를원합니다. >>

알고보니 로인부부는 집에서 가든 집수출을 인민군인들과 한 안부들에게 보내주고있었다. 훌륭한 자식의 위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다고 얼마나 큰보 이는 로인부부가. 왕상도동무는 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그는 로 인들의 손을 잡으며 진정한 목

이하고 집도 새로 꾸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생활에서 자 그마한 애로라도 느낄세라 세심 히 보살펴주고있었다는것이였다. 당의 품속에서 영웅의 어머니로 복받은 삶을 누리려는 이요야말 을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가 돌아 올 때 어보는 한창의 편지를 들 려주며 무라했다.

《물어보면 봉로리에 좀 들러

보던 아버지는 영화에서 나오는 일본놈들의 만행은 단순한 영화 의 장면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려게 말하였다.

《네 업에 생긴 이 허물자라 와 부러진 이발도 조선사람이라 고 무작정 차고 때리면 일본놈 들이 먼진 야구공에 맞아 생 겹것지란다. 때맞아 찢겨진 상 치의 아픔보다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는 땅구노의 설움이 더 커서 밤새도록 울던 그 밤에 난 조국이란 무엇인지 알았다. >>

그때부터 아버지는 다시는 쓰

라던 력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조국을 찾아주고 오날의 행복을 안겨준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말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그날의 아버지가 오늘날 조국 을 굳건히 지키려면 때두의 열혈 을 이어나갈 혁명의 계승자들이 지라는 만경대혁명학원으로 이사 가라고 통을 떠미는것만 같았다.

이렇게 되어 그는 주제97 (2008)년 만경대혁명학원생 활기념일에 힘써서 키운 어머니 리의 돼지를 팔아 돈이들을 위 한 첫걸음을 내질었다.

리영애동무는 당의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제4차 전국어머니대 회에 대표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 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 일에 그칠필 마스신 속에서 소 가 울린 소박한 편지를 보아주시 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고, 앞으로 원아들이 정답게 부르는 《우리 신의주엄마》의 청소를 계속 시키게 하라니라는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었다.

뿐만 같은 사랑과 믿음을 달 아안은 그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리영애동무는 위대한 우리 당 과 귀중한 조국을 온몸으로 받 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심장으로 다지며 애국선민의 길을 더욱 역세게 걸어갔다.

리영애동무는 당의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제4차 전국어머니대 회에 대표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 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 일에 그칠필 마스신 속에서 소 가 울린 소박한 편지를 보아주시 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고, 앞으로 원아들이 정답게 부르는 《우리 신의주엄마》의 청소를 계속 시키게 하라니라는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었다.

뿐만 같은 사랑과 믿음을 달 아안은 그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리영애동무는 위대한 우리 당 과 귀중한 조국을 온몸으로 받 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심장으로 다지며 애국선민의 길을 더욱 역세게 걸어갔다.

리영애동무는 당의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제4차 전국어머니대 회에 대표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 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 일에 그칠필 마스신 속에서 소 가 울린 소박한 편지를 보아주시 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고, 앞으로 원아들이 정답게 부르는 《우리 신의주엄마》의 청소를 계속 시키게 하라니라는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었다.

뿐만 같은 사랑과 믿음을 달 아안은 그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리영애동무는 위대한 우리 당 과 귀중한 조국을 온몸으로 받 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심장으로 다지며 애국선민의 길을 더욱 역세게 걸어갔다.

리영애동무는 당의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제4차 전국어머니대 회에 대표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 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 일에 그칠필 마스신 속에서 소 가 울린 소박한 편지를 보아주시 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고, 앞으로 원아들이 정답게 부르는 《우리 신의주엄마》의 청소를 계속 시키게 하라니라는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었다.

뿐만 같은 사랑과 믿음을 달 아안은 그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리영애동무는 위대한 우리 당 과 귀중한 조국을 온몸으로 받 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심장으로 다지며 애국선민의 길을 더욱 역세게 걸어갔다.

고결한 의의속에 빛나는 위훈

공화국영웅 리충성동무의 부모들이 보내온 편지를 보고

소리를 내놓았다.

《이제까지 저를 진아들로 생 각해주시시오. >>

그때부터 왕상도동무는 평명 손도인의 집에 자주 찾아가 생 활에서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우주 고 하였다. 련감도 넉넉히 마련 해주고 여러가지 영양식품들과 과 부식들을 보내주면서 아낌없는 진정성을 기울여왔다.

로인부부는 친구부처님 불부조 고있는 사람속에는 어느 한 완 장 지체인 마코님도 있었다. 몇해전 마코님동무는 정남구 에 살고있는 이모네 집에 다녀 온적이 있었다. 이모네 집으로 들어서던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 었다. 이건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너무도 빈약하게 말라진 집 인원을 의이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에게 이모가 시선을 돌려주었다. 당에서 공화국영웅의 가족들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는 일을 못하게 할 인라카를원합니다. >>

알고보니 로인부부는 집에서 가든 집수출을 인민군인들과 한 안부들에게 보내주고있었다. 훌륭한 자식의 위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다고 얼마나 큰보 이는 로인부부가. 왕상도동무는 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그는 로 인들의 손을 잡으며 진정한 목

이하고 집도 새로 꾸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생활에서 자 그마한 애로라도 느낄세라 세심 히 보살펴주고있었다는것이였다. 당의 품속에서 영웅의 어머니로 복받은 삶을 누리려는 이요야말 을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가 돌아 올 때 어보는 한창의 편지를 들 려주며 무라했다.

《물어보면 봉로리에 좀 들러

보던 아버지는 영화에서 나오는 일본놈들의 만행은 단순한 영화 의 장면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려게 말하였다.

《네 업에 생긴 이 허물자라 와 부러진 이발도 조선사람이라 고 무작정 차고 때리면 일본놈 들이 먼진 야구공에 맞아 생 겹것지란다. 때맞아 찢겨진 상 치의 아픔보다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는 땅구노의 설움이 더 커서 밤새도록 울던 그 밤에 난 조국이란 무엇인지 알았다. >>

그때부터 아버지는 다시는 쓰

라던 력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조국을 찾아주고 오날의 행복을 안겨준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말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그날의 아버지가 오늘날 조국 을 굳건히 지키려면 때두의 열혈 을 이어나갈 혁명의 계승자들이 지라는 만경대혁명학원으로 이사 가라고 통을 떠미는것만 같았다.

이렇게 되어 그는 주제97 (2008)년 만경대혁명학원생 활기념일에 힘써서 키운 어머니 리의 돼지를 팔아 돈이들을 위 한 첫걸음을 내질었다.

리영애동무는 당의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제4차 전국어머니대 회에 대표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 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 일에 그칠필 마스신 속에서 소 가 울린 소박한 편지를 보아주시 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고, 앞으로 원아들이 정답게 부르는 《우리 신의주엄마》의 청소를 계속 시키게 하라니라는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었다.

뿐만 같은 사랑과 믿음을 달 아안은 그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리영애동무는 위대한 우리 당 과 귀중한 조국을 온몸으로 받 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심장으로 다지며 애국선민의 길을 더욱 역세게 걸어갔다.

리영애동무는 당의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제4차 전국어머니대 회에 대표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 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 일에 그칠필 마스신 속에서 소 가 울린 소박한 편지를 보아주시 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고, 앞으로 원아들이 정답게 부르는 《우리 신의주엄마》의 청소를 계속 시키게 하라니라는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었다.

뿐만 같은 사랑과 믿음을 달 아안은 그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리영애동무는 위대한 우리 당 과 귀중한 조국을 온몸으로 받 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심장으로 다지며 애국선민의 길을 더욱 역세게 걸어갔다.

리영애동무는 당의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제4차 전국어머니대 회에 대표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 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 일에 그칠필 마스신 속에서 소 가 울린 소박한 편지를 보아주시 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고, 앞으로 원아들이 정답게 부르는 《우리 신의주엄마》의 청소를 계속 시키게 하라니라는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었다.

뿐만 같은 사랑과 믿음을 달 아안은 그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리영애동무는 위대한 우리 당 과 귀중한 조국을 온몸으로 받 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심장으로 다지며 애국선민의 길을 더욱 역세게 걸어갔다.

리영애동무는 당의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제4차 전국어머니대 회에 대표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 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 일에 그칠필 마스신 속에서 소 가 울린 소박한 편지를 보아주시 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고, 앞으로 원아들이 정답게 부르는 《우리 신의주엄마》의 청소를 계속 시키게 하라니라는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었다.

뿐만 같은 사랑과 믿음을 달 아안은 그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리영애동무는 위대한 우리 당 과 귀중한 조국을 온몸으로 받 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심장으로 다지며 애국선민의 길을 더욱 역세게 걸어갔다.

에쉴트 오라스콥전기통신 수단 및 기술주식회사 리사장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 사 20년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에 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오비앙 느게마 드비호대통령에게 보내신는 인사말 동철호대사가 정중히 전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말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 사 20년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에 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오비앙 느게마 드비호대통령에게 보내신는 인사말 동철호대사가 정중히 전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말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재미동포전국연합회대표단이 떠나갔다

이에 앞서 기르프스즈만고려 인동일련합회대표단, 로씨야 캄

에스빠냐 루베씨니오법률사무소 국제관계국장 도착

에스빠냐 루베씨니오법률사무소 국제관계국장 이 2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 하였다.

네팔연합민족사회주의당대표단 귀국

네팔연합민족사회주의당대표단 이 22일 비행기로 귀국 하였다.

영국과 인디아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 귀국

영국과 인디아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이 22일 비행기로 귀국 하였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성명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성명 이 22일 비행기로 귀국 하였다.

핵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다

핵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다 이 22일 비행기로 귀국 하였다.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 사 20년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에 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대표단이 떠나갔다

이에 앞서 기르프스즈만고려 인동일련합회대표단, 로씨야 캄

에스빠냐 루베씨니오법률사무소 국제관계국장 도착

에스빠냐 루베씨니오법률사무소 국제관계국장 이 2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 하였다.

네팔연합민족사회주의당대표단 귀국

네팔연합민족사회주의당대표단 이 22일 비행기로 귀국 하였다.

영국과 인디아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 귀국

영국과 인디아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이 22일 비행기로 귀국 하였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성명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성명 이 22일 비행기로 귀국 하였다.

핵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다

핵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다 이 22일 비행기로 귀국 하였다.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 사 20년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에 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